

# 막오른 총선, 불법 혼탁선거 기승

### 전북경찰, 47건 단속·54명 수사... 흑색선전 21명으로 불법 '주범'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구도에 국민의당이 가세해 전북지역 제1당자리를 놓고 야당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벌써부터 불법 혼탁선거전으로 치달고 있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불법 선거 혐의로 총 47건(63명)을 단속, 54명을 수사하고 있다.

선사사범 유형별로는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등 '흑색선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21명으로 33.3%를 차

지, 경쟁 후보를 음해하는 흑색선전이 불법 혼탁선거 주범으로 꼽혔다.

특히 문자메시지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메시지 선거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혼탁선거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고질적인 '돈선거' 행위는 9명(14.2%)으로, 지난 제19대 총선 36명(28.1%)에 비해 큰폭으로 줄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 불법 혼탁선거를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법정 선거운동에 앞서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경찰력을 총동원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지방청과 도내 15개 경찰서에 수사상 황실을 갖추고 178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선거 신고 접수시 관할 불문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불법콜센터 운용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수사전담반을 투입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다.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

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살포는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횟수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선거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들의 선거 방해,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전주시는 28일 전주시혁신센터에서 김승수 시장과 64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제품의 판매촉진과 구매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전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우선구매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 전주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 지원

### 64곳과 우선구매 협약 체결

전주시가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의 판매촉진과 구매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28일 전주시혁신센터에서 64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심재균)와 우선구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실현을 위한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기업의 성장·발전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으로 시는 해마다 우선구매 목표액을 공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주시 소속부서와 출연기관, 전주시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품의 정보제공과 홍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전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전주시에 제공하고, 품질향상과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전주시의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우선구매액인 40억5600만 원보다 9억4100만 원 늘어난

50억(총 구매액의 25%)으로 책정했다.

시는 우선구매액 달성을 위해 우선구매 목표액 대비 달성률과 구매다양성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우선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과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우선구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우선구매 담당자와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상시 관측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 아파트 침입해 금품 훔쳐

완산경찰서는 새벽시간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3년 10월 13일 새벽 3시 30분경 전주시 서신동 김모(53)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노트북과 현금 90만원 등 15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같은해 11월 2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587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일보일로 출국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강제 추방돼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진수 기자

## 차량 절도 30대 '덜미'

완산경찰서는 28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6시에 전주시 효자동의 한 연립주택 앞에 주차된 A(43·여)씨의 차량에서 봉장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훔친 뒤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 7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최근까지 전주시내 주택가 주변에 세워진 차량에서 모두 20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의류 등 10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진수 기자

구독문의 288-9700

## 환경과학원, 호남권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중부지방에서만 실시되던 미세먼지 속 납(Pb)과 칼슘(Ca) 농도의 실시간 조사가 29일부터 제주권과 호남권에 서도 실시된다.

28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제주권과 호남권의 미세먼지 속 납과 칼슘 농도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aikorea.c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는 지난해 3월 백령도와 중부권의 미세먼지 중 납과 칼슘 농도를 공개한 것에 이어 제주권과 호남권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자료 공개는 미세먼지 중 금속성분의 장·단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시간, 24시간, 1년 평균 농도의 형태로 제공한다.

미세먼지 속 금속성분 중 납과 칼슘의 농도를 공개하는 이유는 납의 경우 장기간 노출 시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고 칼슘의 경우 인체 유해성은 없으나 황사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속 성분이기 때문이다.

/인진수 기자

## 전주형 공동체 육성 착수

### 시, 온두레공동체 참여 63곳과 협약 체결

전주시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전주형 공동체 육성 2차년도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시는 올해 온두레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진출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들고, 이를 통해 공동체와 마을과 주민,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2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올해 온두레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63개 공동체 대표 및 회원 등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협약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육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 추진에 나섰다.

올해 온두레공동체 사업에는 지난해 사업참여 공동체 중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음단체 공동체 12곳과 11개 마을공동체, 40개 소규모 공동체 등 63개 공동체가 참여하게 된다.

사업 참여 공동체들은 이날 협약식

에서 올해 전주시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지난해 온두레공동체 사업 참여 이후 협동조합을 설립한 '비버퀵' 공동체와 같이 자생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이음단체의 이종리팀 최준경 대표는 "올해 이종리팀 공동체는 염미의 마음을 담은 천연 발효빵 등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먹거리를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요리강좌 등 재능 나눔을 통해 저소득층 후원과 지역사회 화합을 이끌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도시를 튼튼하게 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도시의 근원이 되는 사업이다"라며 "온두레공동체가 2년 뒤, 3년 뒤에는 전주경제를 살리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 경찰 순찰차 부순 50대 항소심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를 부순 혐의(모욕,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1월15일 밤 10시 10분경 전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릇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

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타서도 조수석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용주 기자

**주간(주말), 아간면접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함이 있다면 귀하게 낳게 된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동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권위자 호감사  
 • 한국음반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턴트  
 • 저서: '35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대학 일반부, 면접지도,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반인협회, (사)한국음반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